

아홉째주 (Week 9)

이사야 60:1-6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는 기도:

빛되신 하나님,

종종 저희는 깊고 생기 없는 어둠 가운데 해메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선 저희 가운데 비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부터 나오는 찬란한 빛이 저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비취지고 스며들길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이사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흠뻑 젖게 될 순간이 도래할 날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창조행위는 빛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별들 같이 다른 어떤 빛의 근원이 될만한 것들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그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서술합니다. 순전하고 찬란한 빛을 말입니다.

공허함과 혼란으로 가득찬 깊은 어둠 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일때, 우주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빛으로부터 생명은 탄생하였습니다. 그 우주적 광채가 터져나온 최초의 순간을 거친 후에, 별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별들의 빛은 우주공간 가운데로 퍼져나갔지만, 그 끝에는 결국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멸된 별들의 잔해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인 탄소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지구의 먼지로부터 인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소멸된 별들의 먼지로부터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근원적 광채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로 전이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신적 형상으로 우리는 빛으실 때 우리 자신만의 특별한 광채를 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스타더스트와 같은 존재들(Stardust beings)입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빛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여전히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이끌려 갑니다. 그러나 빛은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미스터리한 대상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60 장 말씀 역시 난해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 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이 비추는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을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담겨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마치 빛의 근원이 이스라엘인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60 장 말씀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는 그 분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야훼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야훼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비취질 것이다...태양은 더 이상 너희의 빛이 아니다...왜냐하면 야훼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의 본문에서 진정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입니까? 살펴보면, 둘 다 모두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배석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주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언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과 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일어나, 너희에게 도달한 빛을 반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의 의해 반사된 빛 앞으로 열방이 나아오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고유한 빛* 가운데로 그들이 나아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일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인해(because of who God is)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만의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거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과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빛과 반사에 대한 모든 전형적인 분류들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근원이 되는 빛이 너무나 강하고, 찬란하며, 거룩하고, 훌륭하기에, 그 빛은 자신만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substance)과 공의(righteousness)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사로 잡히거나 그로 의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비춤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만의 고유한 빛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그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 익숙해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거룩한 빛은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행동하며, 비슷하게 생각하는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아닌, 그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다양성으로 가득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빛을 통해 그 다양성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환영받기 원하듯이 다른 모든이들이 나타날때 그들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른해볼 주제:

- 하나님의 빛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반면, 다른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낼 어두움을 두려워 하곤 합니다. 당신은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내면의 충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마태복음 5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다른 이들 앞에 비춰질 때,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라 하신 이 명령이 당신이 사는 삶에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 비록 모든 열방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의 완전한 성취는 여전히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이지만, 어떻게 마태는 이 성취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이사야 60:1,3,6 장과 함께 마태복음 2:9-11 을 읽어보세요.)
- 바울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주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빌립보서 2:15)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교회 또는 기숙사 입니까? 혹은 당신의 집과 가정 가운데 입니까?